

退溪·栗谷의 理氣論의 比較論**

黃 慶 萱 *

提 要

퇴계와 율곡은 학문에 있어 朱子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들이 논한 우주의 본체는 모두 理氣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우주보편의 원리에 있어 모두 無極이 바로 太極(無極而太極)이라 하였고 천지만물의 演進에 있어서는 모두 理는 一元이지만 萬端으로 나누어 진다(理一而分殊)라고 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태극이 우선개념이며 음양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태극이 一이며 음양은 二라고 하였다. 이것은 理氣 역시 하나면서 둘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태극이 원래 음양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선후를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理氣 역시 둘이면서도 하나이므로 妙會하여 不離하는 것이라 파악한 것이다. 本體論에서 인생을 논하여 理가 인간에게 주어져서 性이 되고 氣가 인간에게 응집되어 形이 되며 外界의 사물에 자극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 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퇴계와 율곡 모두 異論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理가 발동하고 氣가 따르는 것과 氣가 발동하고 理가 타는(乘)것이 좋으며, 理가 氣에 掩蔽되거나 氣가 理를 息滅시킨 것을 惡이라 하였고, 율곡은 理가 전체일 때는 善이 아닌 것이 없으며 氣가 발동할 때 비로소 선악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점이다. 이는 모두 주

* 대만사범대학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6호(1980) 게재논문

자의 一面씩을 얻은 것으로 주자학의 發場에 공로가 있는 것이다.

I.

중국문화는 세계에 있어 선진적인 것이었고, 그 학술사상은 공자를 宗師로 하였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도 그 당세에 있어 이미 제자에 따라 달리 이해하는 차이가 있었다. 증자는 공자의 가르침이 忠恕일 뿐이라는 것(多學而已)으로 파악하였고, 자공은 많이 배우고 기억하는 것(多學而識)이라 이해하였다.

진시황의 분서사건 이후에 한대의 유학자들은 옛 서적을 정리하고 문자를 訓釋하는 것을 當前의 급무로 삼았으므로 多學而識을 중시했던 것이다. 魏晉대에 불교의 東傳이 성함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明心見性」으로 「以心傳心」의 법을 구하는 것이 학술계의 분위기가 되었다. 이에 유학자들은 이 불교의 禪學에 대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韓愈(A.D.768~824)는 堯·舜·禹·湯·文·武·周·孔의 道統을 주창하였고, 특히 孔·孟을 존숭하였다. 그의 제자 李翱(A.D.722~841)는 불교와의 융합을 꾀하였으며 中庸을 특히 중시하였다. 송대의 유학자들은 이를 계승하여 그 大義를 더욱 확대시켰다. 胡瑗(A.D.993~1059)과 孫復(A.D.992~1057)은 그 물줄기를 텃으며 周敦頤(A.D.1017~1073), 張載(A.D.1020~1077), 程顥(A.D.1032~1085), 程頤(A.D.1033~1107)를 경과하면서 찬란한 발전을 하였고, 朱熹(A.D.1130~1200), 陸九淵(A.D.1139~1192)에 이르러서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주자는 「문학」을 求道의 주요 대상으로 생각했으므로 그의 가르침은 格物致知에 있었다. 육상산은 본심의 파악을 구도의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그의 가르침은 본심을 계발하고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근본취지가 유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위로 증자를 계승하여 공자의 忠恕一貫의 요지를 이해한 사람들인 것이다. 육상산의 學은 명대에 왕양명(A.D.1472~

1528)이 나와서 이를 계승 발전시켜 극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자학은 한 때 「僞學」으로 몰려 禁學이 되었으나 理宗(趙昀·在位1225~1264)대에 이르러 四山 진덕수(AD1178~1235)의 힘을 입어 금학에서 풀려 다시 밝아졌다. 진덕수의 저술로는 大學衍義·四書集編·心經(1권)이 있는데 심경은 정민정(明人)이 附註를 썼다. 진씨의 모든 저술은 주자를 그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자학은 북으로 전파되어 조선에서 두 사람을 얻었는데 퇴계 이황(1501~1570)과 율곡 이이(1536~1584)가 이들로써, 모두 주자를 존송하였고 진덕수를 중시하였다. 퇴계의 學은 「心術隱微」와 「躬行實踐」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오로지 주자를 존송하였으며 陸·王의 學을 禪學이라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또 정민정이 註한 진서산의 심경을 궁내의 경연에서 講授하였다.

율곡은 일찍이 23세에 陶山에 가서 퇴계를 배알하여 主一無適과 사물을 응접하는 요령에 질문하였다. 그 후에 往來한 편지에서 居敬窮理에 대해 변론하였다.

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을 강학의 교재로 사용하였으며, 율곡도 서산의 大學衍義를 모방하여 聖學韻要를 지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理氣를 논함에 있어서는, 퇴계는 「非理氣爲一物辨證」과 「心統性情圖」를 지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성혼(1535~1598), 기대승(1527~1572) 등에게 쓴 편지에서도 또한 理氣를 주제로 하였다. 율곡은 「論心性」·「人心道心圖說」을 지었는데 成活原(성혼의 字)에게 답하는 편지 등의 서한에서 그 주장을 반복 천명한 것이 가장 詳細曲盡하다.

퇴계와 율곡사이에 오고간 편지에서 그들이 주장한 학설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두 사람의 理氣說을 비교하여 논해 보기로 한다.

II.

송대의 유학자들은 천지만물의 終極的인 원리를 말할 때 대체로 태극이 그 근본원리라 파악하였다. 「太極」이란 단어는 周易繫辭傳의 「易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兩儀(陰陽)를 낳는다」는 귀절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이 태극이란 것은 아마도 陰·陽·理·氣가 생성하기 이전의 혼돈상태를 지칭한 것인 듯 하다. 道家에 太極圖가 있었으며 周敦頤가 이를 취해서 수정하여 우주만물의 생성역정을 설명하였다. 주자는 태극도설에 주를 달아 그 뜻을 해석하기를,

『태극이라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理를 합하여 하나로 이룬 것일 뿐이다. 그것은 器와 形이 없지만 천지만물의 이치가 이에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無極而太極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천지만물의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器와 形이 없기 때문에 太極本無極이라 하는 것이다.』

라 하였다. 極은 道理의 지극한 것이며, 천지만물의 이치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태극인 것이다.

퇴계는 일찌기 理의 허실을 논하였는데 그 근본취지는 「無極而太極」에 귀착하는 것이다. 그는 鄭惟一(1533~1576·字는 子中·號는 文峯)에게 답한 편지의 별지에서 이르기를,

『眞實無妄한 데서부터 말하자면 하늘 아래에 理보다 더 實한 것은 없다. 그 無聲無臭한 데서부터 말하자면 하늘 아래에 理보다 더 虛한 것은 없다. 오직 「無極而太極」한 귀절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 하였다.

태극이 動態일 때 陽이 생성하고 靜態일 때 陰이 생성하는 것이며, 음양이 變合하여 水火木金土의 五行이 생성되는 것이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도 하나의 태극인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는 李德弘(1541~1591·字는 宏中·號는 良齋)에게 답한 편지에서

『태극은 음양 가운데 있으며 음양과 격리되어 있지 않다.』

라 하였고 禹性學(1542~?·字는 景先·號는 秋淵)에 답한 편지에서 이
르기를

『음양에서 오행이 생기는 것을 인간의 경우에 비유하자면 부모가 자식
다섯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 하였으며 時王에게 진헌한 「성학십도」에 周敦頤의 「태극도설」을 첫
머리에 제시하고 아울러 「태극도설」을 첨부하였던 것이다.

율곡이 태극을 얘기한 것은 그가 牛溪 성혼(1535~1598·字는 活
原)에게 답한 편지에 보인다.

『천지간의 인간과 사물에 비록 각각 그 이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이치가 바로 만물의 이치이며 만물의 이치는 바로 우리 인간들
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統體로서의 一太極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천지만물의 이치는 모두 태극을 그 종극
으로 삼은 것이므로 그 논리가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퇴
계는 태극이 앞서고 음양은 뒤지는 것이며 태극은 하나이며 음양은 둘
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非理氣爲一物辨證」에서 이르기를,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易에 태극이 있어 이것이 음양을 낳는다”고 했고
주자는 이르기를 “태극이 動態일 때 양을 낳고 靜態일 때 음을 낳는다”
고 했으며 또 “無極의 眞과 二와 五의 精이 묘합하여 응집된다”고 하였
다. 지금 공자와 주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음양이 태극임을 분명히 말하
였다. 만약 理와 氣가 본래 一物이라고 말한다면 태극은 바로 兩儀(陰

과 陽)가 되고마는 것이니 어디에 천지만물을 생성케 하는 자가 있는 것인가? 眞이니 精이니 하는 것은 그것이 二物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妙合而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一物이라면 어찌 「妙合而凝」하는 것이 있을 것인가?」

라 하였다.

이와는 달리 율곡은 태극이 원래 음양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혼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르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태극이 動態일 때 양을 낳고 靜態일 때 음을 낳는다”고 하였다. 이 두 마디가 어찌 모순이 있는 말이겠는가? 만약 이를 오해하면 반드시 음양은 본래 없는 것이며 태극이 음양의 앞에 있고 태극이 動한 후에 양이 생겨나고 靜한 후에 음이 생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 하였다.

두 사람이 理氣를 논할 때 율곡은 妙合說을, 퇴계는 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들 학설의 不同은 실로 여기에 근원을 둔 것이었다.

III.

태극이라는 宇宙終極의 원리를 통하여 우주의 본체를 추론함에 있어 程·朱는 모두 理氣로써 이를 논하였다. 理는 원리이며, 氣가 응결조작되면 실질이 되는 것이다. 원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실질 가운데 기탁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와 氣가 혼연히 일체이며 양분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兩體가 병립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로 합하여 이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천하에 理가 없는 氣가 없으며 氣가 없는 理도 없다.』

『이 氣는 理에 依傍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이 氣의 聚合에 있어서는 理 또한 이에 있는 것이다.』

『理는 氣에서 遊離된 적이 없다. 그러나 理는 形而上者이며 氣는 形而下者이다.』

『누가 물기를 “반드시 이 理가 있는 후에 이 氣라는 것이 있다”는 논리는 어떠합니까?”고 하자, 주자께서 대답하였다. “理氣는 본래 선후를 논할 것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理가 있음을 얘기해야 한다. 그러나 理라는 것이 따로 一物인 것이 아니라 이 氣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氣가 없으면 理도 掛搭할 곳이 없게 된다.』

라 하였다.

퇴계는 理가 형이상의 道이며 氣가 형이하의 器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李德弘에게 답한 편지에서,

『대저 貌象과 形氣가 있어 천지 사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모두 器이다. 그러나 그것이 갖추고 있는 理는 바로 道이다. 道는 器와 격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의 形影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이상이라 하는 것이다. 器는 道와 격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형상이 있어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형이하라 이르는 것이다.』

라 하였다.

이 理와 氣는 근본적으로 서로 격리된 것이 아니며 또한 서로 混離된 것도 아니다. 그것이 서로 혼리된 것인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석적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二物이나 그것이 서로 격리된 것인 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퇴계는 奇大升(1527~1572·號는 高峯 字는 明彦)에게 답한 편지에서

『아마도 理와 氣는 상호보조적인 관계에서 體用이 되는 듯 합니다. 본

래 理가 없는 氣가 없고, 또한 氣가 없는 理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별의 입장에서 본다면 理와 氣는 분별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라 하였다.

그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퇴계는 「非理氣爲一物辨證」에서 주자가 劉光世(1089~1158 · 字는 平叔)에게 답했던 편지를 인용하면서

『理와 氣는 명백히 二物이다. 다만 物의 입장에서 볼 때는 二物이 혼돈하여 分開할 수 없이 각각 一處에 있다. 그러면서도 二物이 각각 一物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만약 理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物이 없더라도 이미 物의 理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만 그 理가 있을 뿐이며 실지로 이 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하였다.

퇴계설의 중점은 理·氣의 분별에 있다. 율곡의 理氣에 대한 해석은 그가 성혼에게 답한 편지에서 읽을 수 있다.

『理가 아니면 氣는 근거할 바가 없고 氣가 아니면 理도 의착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二物이 아니며 또 一物도 아닌 것입니다. 一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며 二物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一物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함이겠습니까? 理氣가 비록 서로 격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묘합하는 가운데 理는 스스로 理이며 氣는 스스로 氣로서 서로 협잡하지 않기 때문에 一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二物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함이겠습니까? 비록 理는 스스로 理이며 氣는 스스로 氣인 것이라 하더라도 渾沌無間하고 先後離合이 없어 그것이 二物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二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理는 形而上者이며 氣는 形而下者로 二者는 서로 격리될 수 없습니다.』

율곡이 말하는 “理는 형이상이며 氣는 형이하로서 혼합되지도 격리되

지도 않는다.”는 논법은 본래 퇴계의 논법과 같은 것으로 하나같이 주자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혼에게 답한 편지에서,

『氣는 理와 격리될 수 없고 理는 氣와 격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면 理와 氣는 하나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른바 理自理·氣自氣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라 하였다.

율곡의 설은 理氣가 묘합하여 不離한다는 것이 주가 되며 중점의 理氣의 함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 退·栗의 다른 점인 것이다.

IV.

理라는 것은 하나일 뿐인 것이며 이에 타는(乘)氣가 升陵流行하여 이것이 천지간의 만물을 생성케 하고 그 나누어 지는 것은 수만갈래인 것이다. 理는 하나이나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理一分殊)는 말은 원래 정이천이 문인 揚時(1053~1135·號는 龜山·字는 中立)에게 답한 장재의 西銘의 주를 썼고 이를 더욱 천명하여 말하기를,

『대개 乾을 아버지라 하고 坤을 어머니라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렇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理는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처럼 혈맥이 있는 것들은 각기 제부모를 부모로 모시고 제 자식을 자식으로 아끼는 것이니 理에 하나로 통합되고 난 후에 만 갈래의 구분이 있다면 비록 천하를 일가라 하고 중국전체를 一人이라 하여도 목가에서 말하는 겸애의 폐단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이다. 만 가지의 등차가 있더라도 하나로 관철되기만 하면 비록 친밀함과 소원함에 대한 정이 다르고 귀인과 천인에 대한 등차가 다르더라도, 자기만을 위한다는 사적인 제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西銘의 大旨이다.』

라 하였다. 주자어류에서는 이를 더욱 요약해서,

『어느 제자가 주자에게 理氣에 대해 물었다. 주자는 대답하였다. “이천 선생께서 이에 대해 잘 말씀하셨다.” 또 말하기를 “理는 하나인데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말은, 천지만물을 합하여 말하면 다만 하나의 理가 있을 뿐이며 인간 각개인에 있어서는 각자가 하나씩의 理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하였다.

퇴계는 여기에서 마음 속으로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그는 柳仲淹(號는 巴山·字는 希范)에게 답한 편지에서 주자의 「分水鋪詩」에 근거하여 단정적인 論斷을 내렸던 바 있다.

『주자의 分水鋪壁間詩에 이르기를 “물의 흐름은 정해진 방향이 없는데, 땅의 형세에 동서가 있다. 만약 나누어 질 때의 다름을 안다면 바야흐로 모이는 곳이 같다는 것을 알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시를 읽은 사람이 轉語를 내려주기를 청했으므로 滉은 헤아려 생각치 않고 멋대로 대답하기를 “氣에 의해서 만 가지의 분별이 있는 것이요, 원리에 있어서는 같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원리는 같지 않음이 없다”가 바로 「理一」의 뜻이며 “氣에 의해서 만 가지의 분별이 있는 것이다”가 바로 「分殊」의 뜻인 것이다. 퇴계는 黃俊良(1517~1563·號는 錦溪·字는 仲學)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를 더욱 상세히 말하였다.

『理로써 말한다면 본래 一體이나 分으로써 말한다면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것이 大本이며 남에게 있어서는 남의 것이 大本인 것입니다. 陳經正(程頤의 弟子·字는 貴)이 이르기를 “내가 볼 때 천지만물이 모두 나의 性 아님이 없어 다시는 내가 나인 줄 모르겠더라”고 했는데 이는 理一은 알았으나 分殊는 모른 것입니다.』

율곡의 논리도 대략 이와 相同하였다. 그는 성혼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했다.

『理가 비록 하나이지만 이미 氣를 타면(乘)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에 있어서는 천지의 理가 되고 만물에 있어서는 만물의 理가 되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의 理가 되는 것입니다.』

율곡은 또한 이 설을 근거로 하여 佛陀·筍況·揚雄의 잘못을 배척하였다. 그는 성혼에 답한 편지에서 말하였다.

「理一分殊」라는 네 글자는 가장 세밀히 考究할 만 합니다. 다만 理가 하나라는 것만 알고 나누어져 달라짐을 모른다면 불가에서 「作用」을 性 자체라 생각하여 미처서 제멋대로 날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만 나누어져 달라짐만 알고 理가 하나라는 것을 모른다면, 筍況과 揚雄이 性을 악한 것 혹은 人性에는 선악이 섞여 있다고 생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退·栗은 여기에 있어 더욱 異論이 없다. 퇴계가 말하는 「理無不同·氣有萬別」이나 율곡이 말하는 「理雖一·其分萬殊」는 모두 程·朱의 학설에 연원을 둔 것이었다. 퇴계가 여기에 근거하여 陳經正을 논박하였고 율곡은 여기에 근거하여 佛陀·筍況·揚雄을 駁斥하였는데, 이는 주자가 여기에 근거하여 墨瞿와 楊朱를 배척했던 것과 비견할 수 있겠다.

V.

理氣의 본체론을 통하여 아래로 인간의 생명을 논해 본다면 인간은 모두 천지의 理를 받아서 성격이 형성되고, 천지의 氣를 받아서 육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性은 마음이 구비하여야 하는 理이며, 心은 理가 聚

습한 형태인 것이다. 마음이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으면 발동이 있게 되어 이것이 바로 情인 것이다. 주자는 大學或問에서,

『天道가 유행하여 만물을 발육한다. 그 조화하는 바는 음양오행일 뿐이다. 그런데 이른바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반드시 理가 있는 후에 氣가 있는 것이다. 만물을 생기게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氣가 聚集한 때 문에 그 뒤에 形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만물의 생겨남에 있어 반드시 이 理를 얻은 후에 健·順·仁·義·禮·智의 性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氣를 얻은 후에 혼백·오장육부·골격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

주자문집 소재의 “方誼(주자의 제자·字는 賓玉)에의 답서”에 이르기를,

『仁義禮智는 모두 性에 구비되어 있으나 그 실체는 渾然하여 구체적인 실상을 볼 수가 없다.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어 발동함에 이른 후에야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작용을 볼 수 있으며 인의예지의 단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情이라는 것이다.』

라 했다. 마음이 性情을 통관한다. 즉 「心統性情」은 장재가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張子全書의 性理拾遺에 보인다. 주자는 장재의 설을 推重하였다.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전에 胡宏(1105~1155)의 설을 보았는데, 다만 “심이 바로 性이다.”에 대한 설 뿐이어서 情字에 대해서는 전혀 그 來源을 알 수 없었다. 후에 橫渠心統性情說을 보고서야 이 말이 크게 공이 있는 것임을 알았으며 비로소 이 情字의 귀착하는 바가 맹자의 설과 마찬가지로 찾는 것을 찾아냈다. 맹자께서 이르기를 측은지심은 仁의 발단이라 했다. 仁은 性이며 측은은 情인 것이다. 이는 「情」에서 이것이 心の 작용임을 발견한 것이다. 또 맹자께서 이르기를 인의예지는 心에 근본을 둔다고 했는데

이는 性에서 이것이 心의 작용임을 발견한 것이다. 아마도 心이 바로 性·情을 포함하는 것으로, 性은 본체이며 情은 그 작용인 것이다.』

퇴계와 율곡의 理·氣·心·性·情에 대한 規解는 모두 주자를 따른 것으로 거의 이견이 없다. 퇴계는 기대승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르기를

『理氣가 합하여 心이 되면 자연히 虛靈한 지각의 妙用이 있는 것입니다. 고요히 모든 理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情입니다. 이 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情을 激拖發動하는 것도 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心이 性情을 통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 하였다. 율곡은 「人心道心圖說」에서 이르기를,

『天理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性이라 이른다. 性과 氣를 합하여 一身에서 主宰하는 것을 心이라 한다. 心이 사물에 응하여 밖으로 發하는 것을 情이라 이른다. 性은 心의 본체이며 情은 心의 작용이다. 心은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과 이미 발동한 것의 총체적 명칭이므로 “心이 성정을 통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 했다. 이는 모두 「心統性情」에 귀결되며 주자의 논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心統性情圖說」에서

『사단의 情은 理가 미리 발동하고 氣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저절로 純善하여 악이 없다. 반드시 理가 발동하여 아직도 창달하지 못하였을 때 氣에 의해 엄폐된 후에야 不善으로 흐르는 것이다. 칠정에 있어서는 氣가 발동하고 理가 이를 타는(乘) 것으로 이 역시 불선함이 없는 것이다. 만약 氣가 發하여 아직 理에 합하지 못하였는데 그 理를 소멸한다면 방탕하여 악이 되는 것이다.』

라 하였다. 퇴계의 이와 같은 견해는 거의 주자의 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주자문집 권65의 “尙書 大禹謨의 人心道心……의 16자를 注함”에 이르기를,

『心이란 인간의 지각으로, 육체를 주관하며 사물에 응하는 것이다. 形氣의 私에서 생기는 것을 지칭하여 말한다면 이를 人心이라 하고 義理의 公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칭하여 말한다면 이를 道心이라 하는 것이다.』

라 하였다. 주자가 지은 「中庸章句序」에 역시 이르기를,

『心の 虛靈한 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人心과 道心の 구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形氣의 私에서 생기기도 하고 性命의 正에 바탕을 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 하였다. 퇴계의 「理發」은 곧 주자의 「或原於性命之正」고 「其發於義理之公者」인 것이며, 퇴계의 「氣發」은 곧 주자의 「或生於形氣之私」의 뜻인 것이다.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이 理가 있는 다음에 이 氣가 있다. 이 氣가 있으면 반드시 이 理가 있다. 다만 氣를 맑게 타고난 사람은 성현이 되는데 이는 마치 보배로운 구슬이 맑고 찬 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氣를 흐리게 타고난 사람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되는데 이는 마치 구슬이 흐린 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덕성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흐린 물 속에서 이 구슬을 닦는 것이다.』

라 했다. 주자문집 51권의 “黃師雍(字는 子耕)에게 답하는 편지”에서도 이르기를,

『道心を 주로 하면 人心도 변화해서 道心이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논어 향당편에 기록되어 있는 飢食과 衣복에 대한 태도에서 그것의 취사선택은 본래 人心의 발동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러나 공자같은 성인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道心이 되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이는 또 퇴계설—理가 發하고 氣가 따르며 純善하여 악이 없다. 理가 氣에 엄폐되면 不善으로 흐른다. 氣가 發하고 理가 이를 타

도(乘) 불선함이 없다. 氣가 理를 소멸시키면 방탕하여 악이 된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율곡의 설은 이와 약간 다르다. 그는 「人心道心圖說」에서

『理는 본래 순전한 氣에 있어서 淸과 濁이 있는 것이다. 氣는 理를 담는 그릇이다.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氣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속이 순전한 것이다. 氣가 발동하였을 때 선과 악이 비로소 나누어 진다. 선은 맑은 氣의 發이며 악은 흐린 氣의 發이다.』

라 하였다. 율곡은 心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가 理이며, 理의 本身은 순전한 것이요 心이 이미 발동하였을 때를 氣라고 하며 氣에는 청탁의 부동함이 있기 때문에 선악의 구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퇴계의 설은 이와 달랐다. 그는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에서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은 인의예지의 性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은 외계의 사물이 인간의 형체에 부딪치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 외계의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단의 發을 맹자께서 이미 心이라고 했은 즉, 心은 본시 理와 氣의 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發이 理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인의예지의 性이 粹然히 마음 속에 있고,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네 가지는 인의예지의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칠정의 發을 주자는 이르기를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는 즉 理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칠정의 發이 氣에 속한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외계의 사물과 접촉했을 때 쉽게 느끼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形氣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칠정은 광산에 있어서의 광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心中에 있을 때는 순리이며 외계와 접촉하여 발동하였을 때 雜氣가 되고, 외물과 감응하였을 때는 形氣의 私가 되며, 사단의 發이 오히려 理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 하였다. 율곡은 퇴계의 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人心道

心圖說」에서

『理氣는 혼연히 융화되어 애초에 서로 격리된 것이 아니었다. 心이 動하여 情이 되는데 心을 활동케 하는 것이 氣이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은 理이다. 氣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고 理가 아니면 氣는 근원할 바가 없다. 어찌 理發·氣發의 구분이 있겠는가?』

라 했다. 아마도 퇴계는 理氣가 하나이면서 둘이라 생각하여 그 구분을 중시하였으므로 理發·氣發을 주장한 듯하고, 율곡은 理氣가 둘이면서 하나라 생각하여 묘함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理는 본체이며 氣는 작용이라 주장한 듯 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설이 이와 같이 다르다. 그러나 율곡은 「人心道心圖說」에서 다시 말하기를,

『다만 道心은 비록 氣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는 道義가 스스로 성명에 속하는 것이며, 人心은 비록 理에 근본하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는 육신의 욕망이 되므로 形氣에 속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 원래 두 마음이 없다. 다만 작용할 때에 있어 이 二端이 있는 것이다.』

라 하였다. 이는 道心은 道義의 작용으로서 氣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며 人心은 육체적 욕망의 작용으로 理에 근원을 둔 것이라 생각한 것이며 작용할 때 이 二端이 있다고 한 것은 율곡이 이미 방향을 轉變하여 퇴계의 설에 동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I.

위의 서술을 종합하면, 퇴계·율곡의 우주본체론은 모두 理氣를 아울러 논한 것이었다. 그들은 우주의 보편적 원리에 있어서 모두 태극이 곧 무극이라 하였고 천지만물의 演進에 있어서는 모두 理는 일원적인 것이

나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태극이 앞서고 음양은 이에 뒤지는 것이며 태극은 하나이며 음양은 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理氣 역시 하나이면서 둘이므로 구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율곡은 태극이 원래부터 음양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선후를 논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理氣도 둘이면서 하나이며 묘합하여 不離하는 것이라 하였던 것이다. 본체론으로부터 아래로 관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논한다면, 理가 인간에게 주어져서 性情이 되며 氣가 인간에게 응결되어 형체가 되고 외계의 사물에 감촉되어 작용하면 情이 되는 것이다. 퇴계와 율곡은 이에 있어서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퇴계는 理가 작용하고 氣가 이를 따르며 氣가 작용하고 理가 이를 탐(乘)을 선이라 하고, 理가 氣에 업혀되고 氣가 그 理를 식멸시킨 것을 악이라 하였다. 율곡은 理가 본체로서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氣가 작용하면 선악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점이다.

대체로 退·栗의 학문은 모두 주자를 바탕으로 하였다. 주자의 이기론을 吳康은 「理氣二元論」이라 하였고, 錢穆은 「理氣一體의 宇宙觀」이라 하였다.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定論이 없는 것임을 증명해 준다. 퇴계가 理氣를 하나이면서 둘(理氣一元的二元論)이라한 것이나, 율곡이 둘이면서 하나(理氣二元的一元論)라 생각한 것은 또한 공자 문하에서 「一貫之道」를 해석할 때 각제자의 견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주자학의 일부를 체득한 것이며 주자학의 弘揚에 공로가 있다는 점이다.